

광주시교육청, 실효적 인권교육 진행 위해 '인권정책' 적극 추진

학교의 자율적 판단 존중 및 인권존중 문화 정착 위해 결정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운영, 학교장 판단 사업 조정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면서도 실효적 인권교육이 진행되도록 인권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학생인권실태조사와 2022년 광주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생인권 조례 지지도(82.7%)와 실천도, 학생들의 인

권 존중에 대한 만족도(4.09점, 4.5점 기준)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인권존중의 문화가 상당히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인권존중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왔던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운영을 학교장 판단 사업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책무성을 높이고자 광주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들의 권리보장 내용을 홍보하는 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또 교육 주체별 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견 반영 통로 확대 등 참여 활동 강화를 통해 현장감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광주형 미래학교 중 자치학교

영역에 ▲민주인권평화의회식 기반 민주시민교육 ▲기후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 기존 민주·인권·평화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포함해 선택 운영하도록 했다. 인권조례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OX 퀴즈로 알아보는 학생인권 조례' 자료를 개발해 학급 단위로 보급한다. 더불어 ▲교원대상 체험형 인권교육 실시 ▲민주·인권·평화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사례집 보급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지도교원 활동 설명회 ▲학생 참여형 인권교육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학생참여예산제 확대 ▲찾

아가는 학생회 자치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단위학교 학생회와 연계를 강화한 학생회 운영 ▲학생의회 의장단 협의회 운영 ▲학생의회 의장단과 교육감의 간담회 정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고인자 과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또한 강화하겠다"며 "우리 교육청은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무안교육청 Wee센터, 부모-자녀 그림책 산책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6일 '부모-자녀 그림책 산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1월 6일에 실시했던 학부모교육에 이어 학생에게는 다양한 그림책을 접하는 방법, 학부모에게는 좋은 그림책 고르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노미숙 사단법인 한국그림책문화협회 이사장을 감사로 구성하여 운

영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림책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림책을 통해 제 마음도 위로받았어요"라고 하였으며, 학부모들은 "다양한 그림책을 알게 되었다", "그림책에 대한 편견을 깨고 좋은 그림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간다.", "오늘 당장 아이와 동네 서점에 방문하여 배운 것들을 실천해보겠다"라고 전했다.

김선치 교육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며, "무안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와 공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교육청-(사)정유재란역사연구회, 역사교육 업무협약 체결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11시, 2층 소회의실에서 (사)정유재란역사연구회와 정유재란에 대한 순천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적지를 탐방하는 '우리지역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우리지역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 업무협약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2023. 찾아가는 향토사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춰 변경하여 정유재란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바로 알고 역사인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였다.

정유재란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구례·남원·전주·완도 등에 그 흔적이 있으며 특히, 해동면 신성포와 광양만 일대는 조·명·일 3국이 2개월에 걸쳐 치루어졌던 최후 전적지로 호남 유일의 순천왜성을 비롯한 총무사, 검단산성, 장도 등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협약식에 참여한 임동규 회장은 "정유재란의 역사 이해 교육과 유적지 탐방을 통해 정유재란에 대해 깊은 이해와 사적 제418호와 제232호, 문화재자료 제48호 등 다양한 유적에

대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신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중운 교육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義鄉(의향), 藝鄉(예향), 味鄉(미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으며, 우리 고장을 알고 미래를 나아가 역사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미래 순천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3월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탐방소감 발표 및 답사여행기도 공모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영암교육청, 교육장과 함께 '공감 소통의 시간'

근무중인 직원 80명 대상,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 바탕으로 진행

영암교육지원청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장과 함께하는 공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영암교육지원청에서 근무중인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최광표 교육장은 2022년에도 직급별로 도시락을 먹으며 공감 소통의 시간을 가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 섰다.

영암교육청에서 근무한 최OO은 "15년간 교육청 근무를 하게 되었다. 교육청 분위기가 변화됨을 피부로 느낀다. 꼭 나쁘게만 변화한 것만은 아니다. 직원 상호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다.

최광표 교육장은 "이번 대화의 시간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여러가지 제시된 의견들은 근무여건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고, 앞으로 더 나은 교육 행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사계절 인문학 강연&콘서트 운영

3월·6월·9월·12월 총 4회에 걸쳐 강연·공연 진행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는 3월 정애련 작곡가의 시노래 콘서트를 시작으로 계절별로 '사계절 인문학'을 운영한다.

삶과 함께하는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문화예술,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리는 '사계절 인문학'은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에 걸쳐 강연과 공연을 함께하는 감성적인 행사로 진행된다.

전체 일정은 ▲봄- 3월 3일 정애련 작곡가의 시노래 콘서트 '한국 현대가곡이 가진 휴머니즘' ▲여름- 6월 1일 정여울 작가와 서울밴

드의 북콘서트 '문학이 필요한 시간' ▲가을-9월 7일 김정배 교수와 인문밴드 레이의 렉처 콘서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겨울- 12월 7일 박준 시인 강연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 사계절 인문학'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매 회 강연 2주 전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재환기자

세상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돕는 강연도, 공연도

사계절 인문학

봄날의 꿈
정여울 시인 강연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3월 3일)

문학이 필요한 시간
김정배 교수와 인문밴드 레이의 렉처 콘서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9월 7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준 시인 강연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12월 7일)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정여울 시인 강연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3월 3일)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전라남도교육청 1층 대강당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